

합성어의 의미와 상황의미(ad hoc concept)

양정연* · 이상철**

건양대학교
충남대학교

English Compounds and Ad Hoc Concept

Yang, Jeong Yeon* and Lee, Sangcheol**

Konyang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6.3.202011.315>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October 11, 2020

Revised: November 04, 2020

Accepted: November 13, 2020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0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3, 315-327. The previous studies on English compound words are operated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focusing on the headness and semantic relations between English compounds' constituents. In Relevance theory, however, the inference of lexical meanings also has the same process as the general communication process. It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contextual information. Flexible lexical inference such as narrowing, loosening, and metaphoical extension is necessary to make the inference process efficient. In this paper, the metaphor or metonym is not treated as a separate category but inferential process. The meaning of the constituents and the contextual information are integrated conceptually through the interential process and then finally constructed through the ad hoc concept. (Konyang Universi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English compound, relevance theory, ad hoc concept, lexical meaning inference, metaphorical extension

1. 서론

합성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개별 단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로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합성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합성어의 형태에 관한 연구와 합성어의 통사적 구조와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 간의 의미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개별 성분들은 기존에 어휘부에 존재하는 어휘들로 신생어가 아니지만 두 성분이 연결되어 결합된 합성어는 어떤 대상을

지시(referent)하기 위해 생성된 것으로 어휘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어휘가 한 가지 의미만을 전달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다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합성어 또한 이러한 다의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워 합성어를 범주화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성 이론에서는 어휘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수용자가 어떤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휘의 의미가 다르게 추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휘 의미가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어휘일지라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의미 해석 과정을 거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맥락 요소에 따라 의미 추론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휘의 다의적인 특성이 합성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합성어가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어의 의미 추론에 있어서 유연한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합성어의 의미를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합성어의 의미 추론에 있어서 맥락에 근거한 유연한 의미 해석에서 발생하는 상황 의미(ad hoc concept)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영어 합성어의 선행연구와 제한점

영어 합성어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의 형태를 구분하거나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 간의 의미 관계를 통해 구분하는 방법 등을 취해왔다. 그중에서도 성분 내 핵어(head)의 유무와 위치에 따라 합성어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류로는 어근 합성어, 종합 합성어, 내심 합성어, 외심 합성어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모든 영어 합성어를 구분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합성어의 구성 성분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

합성어의 유형으로는 명사 합성어, 형용사 합성어, 동사 합성어가 있으며 ‘sunshine’, ‘nationwide’, ‘overdo’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성분의 품사가 전체 품사를 결정한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은 독립적인 어휘 항목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등의 주요 어휘 범주(lexical category)가 서로 결합하여 합성어를 생성한다. 합성어는 구성 요소의 의미 자질에 따라 전체 합성의 의미를 대표할 때 핵어(head)를 갖는 내심 합성어(endocentric compound)와 핵어가 없는 외심 합성어(exocentric compound)로 구분할 수 있다(Bloomfield, 1933).

대다수의 영어 합성어가 형태학적으로 복잡한 구조의 핵어를 오른쪽 구성 요소로 규정하는 Williams(1981: 248)의 우변 핵어 규칙(Right-Hand Head Rule)을 따르고 있다. 핵어가 전체 합성어의 범주를 결정하므로 오른쪽 구성요소의 통사 범주가 전체 합성어의 통사범주를 결정한다. 내심 합성어(endocentric compound)는 합성어 구성 성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단어를 핵어로 간주하며 내심 합성어에서 핵어는 전체 합성의 의미를 대표한다. 즉, 구성 성분들의 합으로 도출된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핵어의 하위어(hyponym)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ppletree’는 나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appletree’는 핵어의 하위 범주(subset)에 속하여 $A+B=B$ 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외심 합성어(exocentric compound)는 ‘redskin’은 오른쪽 원소가 그 단어가 속하는 실체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으며, 이는 피부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그스름한 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을 나타낸다. 이처럼 $A+B=C$ 로 핵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성 성분들의 합이 전체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합성어이다. 이러한 외심 합성어는 은유적(metaphorical)으로 또는 환유적(metonymical)으로

사용된 것으로 Bloomfield(1933)는 이를 의미론적으로 불명확한 것(semanticly not clear or opaque)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구조를 흑화 구조(darkened construction)라고 명명했다.

대부분의 합성어가 위에 설명한 내심 합성어와 외심 합성어의 범주로 구분되지만, Libben 외(2003)는 영어 합성어를 합성어 구성 성분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다. Bloomfield가 의미적으로 추측이 불명확한 성분들의 구조를 흑화 구조라고 정의한 데 반해, Libben은 합성어의 구성 성분을 핵어(head)와 한정어(modifier)로 보고 이 두 성분의 의미의 추측 가능 정도를 투명성(transparency)이란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었다. ‘Bedroom’과 같이 두 성분의 결합으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형성되는 합성어와 ‘godchild’와 같이 한정어의 의미는 투명하지 않지만 핵어의 의미가 분명한 경우가 있다. 또한 ‘jailbird’는 추측이 가능한 한정어(transparent modifier)를 가졌지만 추측이 어려운 핵어(non-transparent head)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fleabag’은 두 성분 모두 추측이 어려운(non-transparent) 성분을 포함하며, 이러한 경우 합성어가 비유적(figurative)으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는 Bloomfield의 범주보다는 더 다양한 영어 합성어를 설명해 낼 수 있고, 기존에 핵어 중심의 해석에서 벗어나 한정어의 의미에도 주의를 기울였다는데 유의미 하지만 사실상 ‘jailbird’에서 ‘bird’도 결국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jailbird’가 실제로 감옥에서 키우는 새라면 이는 ‘bedroom’과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의 어휘 의미 해석은 경계의 모호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어휘가 실제 사용된 맥락적 정보(contextual information)에 따라 어휘의 의미가 유연하게 추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영어 합성어의 의미에 관한 연구가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성어의 의미에 관한 연구로는 종합 합성어와 어근 합성어 구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종합 합성어는 ‘earring’, ‘truck-driver’, ‘bookstore’와 같이 합성어의 구성 성분이 합성적(compositional)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들은 구성 성분 각각의 의미가 전체 합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반면, 어근 합성어의 의미는 합성적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어휘화(lexicalization) 과정을 통해 의미의 특이성(idiosyncrasy)을 보인다는 특징을 갖는다. 어근 합성어에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 역할은 제약이 있는데, 이는 구성 성분인 개별 어휘의 의미에 있기보다는 개별 어휘간의 어휘적 관계(lexical relation)에 있다. ‘hair-spray’와 ‘fly-spray’, ‘mosquito-net’과 ‘butterfly-net’는 모두 오른쪽 요소가 핵어이며 각각 ‘spray’와 ‘net’라는 동일한 핵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hair spray’는 머리 모양을 만드는데 뿌리는 제품이고 ‘fly-spray’는 파리를 잡는데 뿌리는 제품이다. ‘Mosquito-net’은 모기를 쫓는데 사용하는 망이고, ‘butterfly-net’는 나비를 잡는데 쓰는 망으로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역할이 일정하지 않다. 동일한 핵어와 동일한 어휘범주를 갖지만 합성어의 의미는 일정하지 않다. 이는 동일한 핵어와 동일한 어휘 범주를 갖고 있더라도 합성어의 의미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개별 어휘의 의미에 있다기보다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휘들 사이의 관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영어 합성어 연구는 위에 정리한 바와 같이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 간의 결합을 형태론적으로 분류하거나 성분 간의 결합 관계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는 기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합성어의 원형 의미(prototypical meaning)를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는 어휘의 다의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firework’는 ‘fire’와 ‘work’의 결합으로 그 의미를 예측해 보면 ‘work with fire’의 의미나 ‘making fire’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과거에 전쟁터에서 화약에 불을 붙이던 군인을 ‘fireworker’라고 불렀는데 ‘firework’가 ‘fireworker’와 파생 관계라고 가정하면, ‘making fire’로 의미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늘날 쓰이는 ‘firework’는 사실상 ‘small objects that are lit to entertain people on special occasions’의 의미로 사용되어 불을 붙여 터지는 번쩍이고 소음을 내는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fireworker’에서 한 단계 이상의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firework’의 소음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신랄한 비판, 격하게 내뿜는 소리’ 등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합성어를 어떤 분류에 따라서 또는 한 범주로 구분 지어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준다. 결국은 합성어 또한 하나의 어휘로 간주하고 어휘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각각 성분으로부터 어떻게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추론될 수 있는지를 맥락 정보(contextual information)와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관련성 이론에서의 어휘의 의미 추론과 상황 의미

Sperber와 Wilson(1986)에 의해 발표된 관련성 이론은 의사소통에서 맥락이 발화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발화의 언어적 의미가 맥락 정보(contextual information)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발화 해석 과정과 유사하게 어휘 의미 추론도 관련성의 예측(expectation)으로 어휘적 축소와 확대의 방법을 취하여 의미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관련성은 실제 일어난 발화와 발화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타의 다른 입력 정보에 의한 인지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긍정적 인지 효과(cognitive effect)를 높이기 위해 입력 정보가 맥락적 추측과 연결될 때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인지 효과를 맥락적 함축(contextual implication)이라고 한다. 이는 입력 정보와 맥락으로부터 함께 추론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입력 정보와 맥락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는 매우 함축적인 것이다. 동일한 의사소통 환경에서 인지 효과가 커질수록, 그리고 그 정보들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이 적을수록 입력 정보에 대한 관련성이 높아진다.

관련성의 의사소통 원리(Communicative Principle of Relevance)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의 발화는 청자의 관련성 있는 추론을 향상 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지적 입력 정보로써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화는 청자가 의미를 추측하는 데 최소한의 노력을 요구하는 최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과 발화에 어떤 문맥적 함축(contextual implication)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상황-특수적 기대(occasion-specific expectation)를 만들어 낸다. 화용론적 추론 과정에서 관련성 기반 중심의 주장은 화자가 특정한 언어적 의미를 지닌 문장을 화자의 의도에 대한 단서로 삼은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화자의 의도한 의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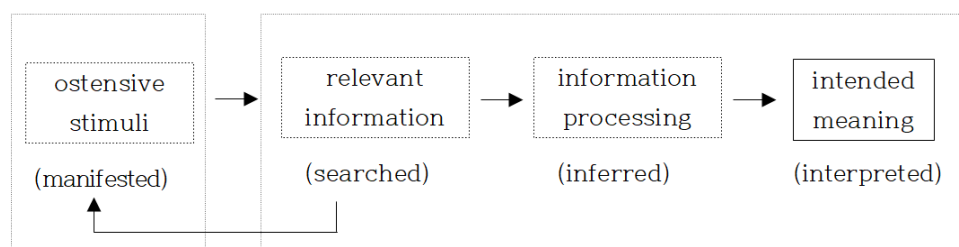


그림 1. 관련성 이론의 직시- 추론 과정(양정연, 2020)

관련성 이론에서 의미 추론 과정은 <그림 1>과 같은 추론 과정을 거치게 되고 발화의 전달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의미 추론이 최적의 관련성을 가질 때까지 반복하게 된다. 이 추론 과정에서 청자는 대화의 맥락 정보와 청자가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식 지식 또는 사회·문화 배경을 동원하여 발화의 실제 의도된 의미를 상징하기 위한 추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 추론 과정에서 맥락에 근거해서 임시로 생성된 상황 의미(ad hoc concept)가 발화 의미 해석에 있어 유연성을 갖도록 돕는다.

Barsalou(1987)의 관점에 따르면, 상황 의미의 구축은 문맥과 수용자의 배경지식 및 관련성에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성 이론은 문맥에 사용된 어휘의 유연한 해석이 추론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론이 될 수 있으며, 발화에서 어휘의 의미가 상징되기까지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쳐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1) Peter: Did John pay back the money he owed you?

Mary: No. He forgot to go to the bank.

Wilson과 Sperber(2004)는 위의 예문을 들어 발화에서 어휘의 의미 구축을 의미의 좁혀짐(narrowing)과 느슨해짐(loosening)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는 의미 추론 과정에서 유연한 해석을 위해서 좁혀짐의 추론 보다는 느슨해지는 의미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위 예문에서 BANK¹⁾의 의미는 돈이 유통되는 기관으로서 원형 의미(prototypical meaning)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개념을 고려해 볼 때 슈퍼마켓이나 길에서 발견되는 자동 현금 지급기를 포함하는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 느슨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BANK를 자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에 접근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라는 의미 해석으로 대화와 청자의 배경지식이 공유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를 Barsalou는 인간이 특정한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범주를 상황 범주(ad hoc categories)라고 정의하고 이는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함께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Barsalou, 1987: 115). 예를 들어 새에 대한 개념은 문맥에서 새를 사냥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를 기르고 있는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미는 단순히 단어의 언어적 의미를 기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화용론 원칙에 의해 추론된 것을 의미 한다.

Barsalou의 이론은 표현된 명제(the proposition expressed)가 사용된 어휘에 의해 상황 의미가 부여된다는 Wilson과 Carston(2007)의 주장과 함께 매우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져 왔다. 기존의 어휘의 통사적 의미론적 해석에서 벗어나 어휘들로 표현된 의미들이 문맥에 따라 변형(modulated)될 수 있다는 견해는 관련 이론가들뿐만 아니라 Recanati(2004)와 같은 실용주의 및 언어 철학의 다른 주요 인물들에 의해 인정되어왔다.

또한 Carston(2010)은 연속 가설(continuity hypothesis)이 상황 의미가 의미 상징 과정에서 암호화된 개념(encoded concept)보다 더 구체적이거나 더 일반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어휘 외연(denotation)은 언어적으로 암호화된 개념의 부분집합이거나 상위 집합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 둘 다 결합일 수도 있는 것이다.

Carston(2019)은 상황 의미(ad hoc concept)를 중심으로 어휘의 다의적인 의미 추론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Sperber와 Wilson(2004)의 표기법을 따라 개념적 어휘를 표기하기 위해서 BANK와 같이 대문자로 표기하고 맥락에 의한 상황 의미를 표기하기 위해 BANK*로 표기하겠다.

Carston은 어휘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더라도 그 추론은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황 의미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때 상황 의미는 입력된 의미(encoded concept), 맥락 정보(contextual information) 그리고 화용적 원칙(pragmatic principles)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의 결과로 어휘의 의미는 좁아짐(narrowing)과 느슨해짐(loosening)의 의미를 구축하게 되는데 느슨해짐의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sion)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drink’의 경우 ‘alcohol’이나 ‘liquor’의 의미가 원형 의미에서 좁혀질 수 있는데 이는 Barsalou가 언급한 원형적 좁혀짐(prototypical narrowing)과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어휘 의미가 좁혀진다는 것은 원형적 개념 중에서 하위개념(subset)을 선택한 의미로 추측될 수 있다. 반대로 의미가 느슨해진다는 것은 ‘flat’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flat tire’와 같이 ‘flat’의 원형 의미보다 확장된 예도 있다. 이는 실제 완전히 평평해진 상태가 아님에도 근사치(approximation)와 같이 원래 성질에서 가까운 개념까지 의미 해석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더 비유적으로 확장된 것이 ‘bulldozer’와 같은 어휘이다. ‘Bulldozer’의 원형 의미가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자 사용된 맥락이라면 이는 ‘bulldozer’의 의미가 사람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 확장이 된 것이다.

Carston은 위의 설명과 같이 어휘의 다의적 의미 해석이 결국 하나의 의미 추론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휘의 추론이 화용론의 틀/framework 안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언어의 의미 해석이 관련성에 근거해서 화용론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심리학자 Glucksberg(1997)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리하면, 상황 의미 구축은 언어적으로 명시된 의미가 좁혀지거나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사소통된 의미는 입력된 정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의미보다 많이 좁혀짐 과정의 결과로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거나 느슨함 과정의 결과로 의미가 일반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일반적이란 의미는 위에서 예시로 든 ‘flat’과 같이 평평한 것에 가까운 근사치(approximation)에 해당하는 문자 그대로의 사용이 될 수도 있으나 과장(hyperbole)이나 은유(metaphor)와 같은 비유적 상황(figurative case)에서도 적용된다(Carston, 2019: 3).

사실상 Carston의 주장은 의미 추론 과정을 완전히 단일화하는 것으로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와 비유적 의미(figurative meaning) 사이의 전통적인 구별을 거부하고 근사치(approximation), 과장(hyperbole), 은유(metaphor)가 서로 다른 해석적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고 서로 구별된 종류와 범주라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인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의미 추론이 한 번의 프로세스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휘에 대한 의미 추론 과정 또한 일반적인 문자적 표현에 사용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해석 과정을 수반하며 추론 과정에서 문맥에 맞는 의미 해석을 채택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Carston의 이론에 따라 영어 합성어의 의미 추론에서 발생하는 상황 의미(ad hoc concept) 구축에 대해서 예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추론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4. 영어 합성어의 의미 추론과 상황 의미 구축

4.1 합성어의 의미 추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성어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어휘들이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생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합성어가 생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Carston이 주장한 어휘의 의미 추론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Carston(2019)은 어휘 의미가 좁혀짐(narrowing), 느슨해짐(loosening), 그리고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pansion)으로 추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성어 ‘haircut’이나 ‘earring’과 같은 어휘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합성어를 이루는 성분들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toothbrush’나 ‘cupcake’, ‘raincoat’와 같은 어휘는 어떻게 추론될 수 있는가? ‘Toothbrush’나 ‘hairbrush’는 핵어는 같지만 한정어 tooth와 hair와 결합했을 때 brush의 의미는 닦는 용도와 빗는 용도로 의미가 각각 좁혀지게 된다. ‘Cupcake’도 ‘pancake’와 ‘cheesecake’와 비교해 설명하면 세 합성에 사용된 ‘cake’는 컵에 담긴 모양을 가진 케이크, 팬에 구워서 만든 케이크, 치즈를 주원료로 사용해 만든 케이크로 원형 의미에서 전부 좁혀진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Raincoat’도 비가 올 때 비에 젖지 않도록 덧입는 외투로 ‘coat’의 의미가 제한되어 사용된 예시이다. 이에 반해서 ‘snowball’, ‘lipstick’, ‘jellyfish’는 합성어를 이루는 성분들이 갖는 원형 의미에서 훨씬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nowball’은 실제 ‘ball’의 완전한 모양을 갖진 않지만,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는 동글게 뭉쳐서 만든 것을 ‘ball’이라고 해도 유연한 의미 추론이 가능한데, 이것은 근사치(approximation)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추론 과정이 느슨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Lipstick’의 경우도 ‘snowball’과 유사하게 ‘stick’의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어 있는데, ‘lipstick’의 경우 원래 볼과 입술에 바르는 붉은 계열의 파우더 형태로 ‘rouge’라고 불렸으나 이후에 ‘rouge’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상품과 되면서 ‘lipstick’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Lipstick’이 많이 알려진 합성어가 아니라면 사실상 ‘lip’과 ‘stick’의 의미적 관계가 추론되기는 쉽지 않다. 유사하게 ‘rainbow’도 ‘rain’과 ‘bow’의 의미적 관련성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rainbow’가 명시하는 지시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존 합성어 연구의 접근 방식으로 ‘lipstick’과 ‘rainbow’를 설명하면 두 복합어가 핵어의 하위어가 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합성어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외심 합성어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련성 이론에서는 합성어의 성분 간의 의미가 관련성을 갖기 위한 맥락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합성어 의미 추론에 있어서 합성어 연구에 확대되어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 합성어가 새로운 지시체를 명시하기 위해 생성된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jellyfish’, ‘seahorse’, ‘eggplant’, ‘snowman’ 등과 같이 지시체의 성질과 유사한 어휘 ‘jelly’, ‘horse’, ‘egg’, ‘man’을 선택하여 원형 의미를 확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 합성어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bookworm’이나 ‘butterfly’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bookworm’은 생성될 때부터 ‘worm’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Worm’이 나뭇잎을 갉아 먹듯 ‘bookworm’은 책을 갉아 먹는 벌레로 사용된 것이 맞다. 하지만 실제 벌레가 아닌 책을 많이 읽는 독서광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도 기존 합성어 분류로 정의한다면 핵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심합성어로 분류 되겠지만 앞에서 예를 든 ‘lipstick’과는 전혀 다른 의미 추론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외심 합성어와 같은 범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utterfly’는 ‘fly’의 한 종류로 내심 합성어로 분류 될 수 있지만 한정어 ‘butter’의 사용은 식품으로 분류된 ‘butter’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단지 ‘butter’의 부드러운 감각의 성질이 적용되어 부드럽게 날개짓하는 ‘fly’를 명시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butter’의 의미 확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에서와 같이 ‘butterfly’의 사용은 의미 확대를 넘어 나비가 날개짓을 배속에서 날개짓을 하듯 긴장되거나 떨리는 느낌을 표현함으로 문맥에 따라서 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은유적 확장으로까지 추론될 수 있게 된다.

Benczes(2006)는 명사 합성어에서의 은유적(metaphorical) 사용과 환유적(metonymical) 사용에 대해서 ‘land-fishing’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Land-fishing’은 실제 물고기를 잡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속탐지기를 수단으로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같은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land-fishing’이라는 합성어를 사용했음에도 청자

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비유적 사용에 대한 인간의 인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대를 이용하는 행위가 땅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행위로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접했을 때 청자가 적당한 맥락에서 land-fishing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인간은 은유적 표현을 접했을 때 주어진 어휘가 사용된 맥락에서 단서(cues)를 찾아 은유적 의미를 추론하게 되는데 이를 은유적 작업(metaphorical oper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합성의 전체 의미는 합성어의 구성 성분의 별개 개념들 사이에서 관련성을 찾아 상호 간의 개념 통합(conceptual integration)을 통해서 가능한 해석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land'에서 육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추론될 수 있으며, 'fishing'에서 어떤 대상을 낚는다는 별개의 개념이 합성어의 의미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된다. 셋째, 인간은 일상 언어와 사고에서 무의식적으로 빈번하게 비유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land-fishing'과 같은 합성어를 접했을 때 은유 및 환유적 연관성의 방대한 저장소(repository)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인지능력이 비유적 표현을 이해하는데 이미 많은 정보가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enczes의 이러한 주장은 의미 추론이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단일적인 추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맥락 정보를 관련성있게 추론하여 의미를 상정할 수 있다는 Carston(201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 상정과정에서 적절한 맥락 정보가 주어진다면 비유적 또는 은유적인 표현의 어휘라 할지라도 상황 의미를 통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앞에서 예시로 든 'butterfly'나 'bookworm'과 같이 합성어가 비유적 표현된 경우, 청자가 이 합성어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 합성어가 비유 범주에 들어가는 어휘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해 놓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 과정에서 맥락 정보를 통해 비유적 표현임을 추측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비유와 과장과 같은 해석은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 청자가 주어진 맥락 정보를 관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WORM*와 BUTTER*에 원형 개념 외에 맥락을 통해 추론된 개념을 임시로 부여함으로 상황 의미(ad hoc concept)를 구축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합성어의 의미가 유연하게 해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영어 합성어의 어휘적 추론 과정에서 맥락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때 구축되는 상황 의미에 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4.2 합성어의 상황 의미 구축

관련성 이론에서 어휘의 의미 추론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과정과 같으며, 어휘적 정보 외에도 어휘가 사용된 맥락 정보가 의미 추론과 상황 의미 구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Wilson and Carston, 2007). 대부분의 어휘가 다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영어 합성어 또한 원형 의미에서 축소, 확장, 또는 비유적으로 확대되어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원형의 의미에서 어떤 유연한 해석 방식이 채택될 것인지는 맥락에 주어진 어휘적 정보와 이를 해석 하는 청자의 배경 지식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2) Every time Megan raised her hand in class in her sleeveless dress, the kid behind her tickled her armpit.
- (3) I don't like the looks of this armpit one bit. Let's get out of here.

‘Armpit’는 ‘arm’과 ‘pit’의 의미가 각각 부여된 합성어로 팔과 어깨 아래의 신체 부위를 가리킨다. (2)의 동사 ‘tickle’은 ARMPIT이 이와 같은 의미로 추측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의 ‘I don’t like the looks of this armpit one bit’ 또한 (2)와 같은 ARMPIT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Let’s get out of here’는 이러한 해석의 추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청자는 ‘armpit’과 ‘get out of’의 정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론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이러한 추론은 PIT*이 (2)의 의미와 다른 상황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ARMPIT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대하여 해석하여 의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자 개인의 경험적 맥락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청자는 PIT*를 ‘unpleasant place’ 정도의 의미를 구축해 낼 수 있다. ARMPIT의 예와 같이 FIREWORK도 비슷한 의미 추론 과정을 거칠 수 있다.

(4) The skies above London were ablaze with a spectacular firework display

(5) There must be no resistance contacts, no fireworks, no phone calls to foreign journalists.

(4)의 ‘firework’는 ‘fire’와 ‘work’의 합성어로 의미 유추가 비교적 쉬우며 합성어이기 하지만 단일 명사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4)의 FIREWORK에 대한 의미는 최적의 관련성을 가지고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다. 그러나 (5)의 예문에서는 간단한 추론 과정으로는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는 문장에서 ‘firework’와 함께 나열된 ‘resistance contacts’와 ‘no phone calls’가 기존의 FIREWORK가 가진 의미적 특성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청자의 FIREWORK와 관련된 백과사전적 지식이 맥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FIREWORK가 터질 때의 소리와 ‘no contacts, no phone calls’를 통해서 (4)에서 언급된 FIREWORK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상반된 의미가 전달된다. 이 추론 과정에서 (5)에서는 FIREWORK*가 특정한 맥락에서 원형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확대된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I was impressed that although he faced many difficulties as a young schoolboy, he became one of the leading scientists of his time.

(7) They allege that he was undone by a schoolboy error.

FIREWORK의 의미 추론 과정에서 기존의 원형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FIREWORK*의 상황 의미를 도출한 것과 같이 (7)의 ‘schoolboy’ 또한 맥락 정보를 통해 유효한 상황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6)의 ‘schoolboy’는 단어 그대로 ‘boy attending school’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7)의 예문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immature’ 또는 ‘inexperience’의 어휘 자질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schoolboy error’와 관련성을 가지고 의미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6)의 경우 ‘school’과 ‘boy’가 원형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BOY*가 갖는 상황 의미에 한정되어 STUDENT의 축소된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 반면 (7)에서는 BOY*가 대상을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툴고 미성숙함의 상황 의미를 구축함으로써 비유적으로 확대 양상을 보인다.

(8) The article shows how mature companies can challenge upstarts.

- (9) Small upstart entrepreneurial companies have repeatedly produced quality software quicker than their larger competitors

(7)과 유사하게 (8)에서도 ‘upstarts’가 ‘immature/ inexperience’의 의미를 가진다. ‘Upstart’는 ‘up’과 ‘start’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8)에서 의도한 의미대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친다. 합성어 구성 성분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up’과 ‘start’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p’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위아래로 나누어지고, ‘start’ 또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 순간 또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추론해보면 어떠한 일을 새롭게 해서 그 일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는 의미로 ‘upstart’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8)과 (9)에서 ‘upstart’는 서로 다른 상황 의미를 가진다. (8)에서 ‘upstart’는 앞에 사용된 ‘mature companies’의 반대로 ‘immature company’의 의미로 어휘 자체적으로 의미 추론을 할 때보다 맥락에서 의미 추론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9)에서 ‘upstart’는 (8)에서 사용된 의미와는 달리, 새롭게 시작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량 기업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맥락에서 ‘immature’의 의미가 아닌 ‘suddenly risen to high status’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8)에서는 어휘의 의미가 ‘start’에 중심을 두어 상황 의미가 구축된 것이고, (9)에서는 UP*이 ‘high level of status’의 상황 의미를 구축함으로써 두 경우 모두 회사를 지시하지만 다른 발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10) One of the best ways to get to your ideal size is to cut fat intake right down.
 (11) The government should be promoting a balanced intake of students for every school.

‘Intake’는 ‘in’과 ‘tak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take something in’의 의미 추론이 비교적 쉬운 합성어이다. 그러나 ‘something’의 대상에 대한 맥락 정보에 따라 (10)-(11)과 같이 다른 상황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추론 과정은 청자가 기존의 인지 과정에서 ‘take’가 AGENT+take+OBJECT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10)에서는 ‘a person takes fat in the body’의 상황 의미를 만들어내는 반면 (11)에서는 ‘government takes students in schools’의 상황 의미를 만들어냄으로써 각각 ‘eat’과 ‘enroll’의 의미로 축소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8)-(9)와 (10)-(11)은 합성어 자체만으로 본다면 같은 원형 의미를 갖지만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맥락 정보와 관련된 어휘 개념이 통합됨으로써 서로 다른 맥락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상황 의미 또한 다르게 구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2) Competitive players, efficient training and cozy ballparks lead to good baseball.
 (13) Vendors will give you a ballpark estimate of calls the vendor expects to be able to complete using your database.

관련성 이론에서 추론 과정에서 최적의 관련성을 가진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의미 상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자의 배경지식과 맥락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의미 추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perber and Wilson, 1986). ‘Ballpark’는 ‘ball’과 ‘park’로 구성된 합성어로 ‘ball’과 ‘park’의 의미 관계를 통해서 BALL*은 ‘playing

a ball'의 상황 의미를 구축되어 원형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로 추론될 수 있다. 반면에 PARK*의 의미는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한됨으로 축소된 상황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두 개념이 통합적으로 추론되어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의미로 의미가 상정 된다. 하지만 'playing a ball'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공놀이 중에서 'baseball'이라고 추론하는 것을 사실상 ball에 대해서 대다수의 해당 언어를 사용자들이 baseball을 원형 개념(prototypical concept)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가 존재해야 한다. 'Ballpark'이 주로 북미에서 사용되는 이유 또한 야구가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ball'을 'baseball'로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13)에서 'ballpark'는 'vendor, estimate, database'와 같은 (12)와 전혀 다른 맥락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ballpark'가 (12)에서 사용된 장소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원형 의미 보다 훨씬 확대되어 추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문장에서 'ballpark'은 'estimate'을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ballpark'은 'ballpark like'의 의미로 1차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

그 다음은 'ballpark'의 원형적 특징 외에 어떤 비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 해야만 다음 추론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만약 청자가 'ballpark'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부족해서 'estimate'와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추론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 앞에서 예를 들은 'firework'가 만들어내는 형상과 소리에 대한 감각적 정보에 대한 지식이 필요로 한 것과 유사하게 'ballpark'의 경우도 야구장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다. 'Estimate'가 수치와 관련이 있다는 어휘적 정보가 있다면 'ballpark'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정돈되지 않은 장소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수치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추론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BALLPARK*는 원형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확대되어 'no exact'의 상황 의미를 갖는다고 추론 할 수 있다.

(14) There was severe rioting in the city last night until they sent the redcaps in.

(15) He's been fine with going after anyone who doesn't agree with Trump since he became a redcap.

합성어의 의미 추론을 위한 맥락의 이해는 앞서 언급한 예시에 사용된 것과 같이 백과사전적 지식, 어휘적 지식, 개인의 경험 외에도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REDCAP은 영국에서 'a member of the military police'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a railroad porter'로 사용이 되는데, 예문 (8)에서 'redcaps'는 'riot'과 관련된 'military police'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9)에서는 'Trump'와 'red'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때 'redcap'은 기존의 어휘부에 등재된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those who wear redcaps'으로 REDCAP*이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상황 의미는 'Trump'의 정당 색이 'red'라는 사회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맥락에서만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3절에서 정리한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의미의 추론과 추론 과정에서 구축되는 상황 의미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영어 합성어는 맥락 정보에 의해 같은 합성어라도 구성 성분의 상황 의미와 전체 합성어의 상황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영어 합성어에 대한 범주대로 합성어가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

5. 결론

지금까지 합성어 분류 방식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의 형태 또는 의미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기존에 생성된 어휘를 가지고 새로운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 합성어이고, 합성어를 포함한 모든 어휘가 다의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합성어의 구성 성분 간의 의미 관계를 어휘적 특징으로만 분류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영어 합성어의 의미 해석에 대한 접근에 제한점을 인식하고, 영어 합성어의 의미 도출에 있어서 관련성 이론에서의 맥락과 맥락에서의 의미 추론을 중심으로 합성어의 의미 해석에 관해 연구하였다. 합성어의 의미 추론에 있어서 좁혀짐(narrowing), 느슨해짐(loosening), 은유적 확대(metaphorical expansion)와 같은 유연한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는 Carston(2010)의 이론을 적용해 영어 합성어의 상황 의미 구축 과정을 살펴보았다.

합성어의 의미 추론 과정은 의사소통 추론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단일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맥락 정보에 의한 어휘의 개념 통합(conceptual integration)이 상황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어의 어휘 해석에서 기존의 은유(metaphor), 환유(metonym), 근사치(approximation)와 같은 어휘 해석의 범주가 의미 추론 과정에서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상황 의미가 구축된 결과물이라는 Carston(2019)의 주장을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합성어를 구성하는 개별 단어의 의미나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만을 통해서 발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발화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의미 도출을 위한 추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합성어의 의미는 발화에 언급된 정보 외에도 청자가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적 지식, 어휘적 지식, 개인의 경험, 또는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합성어의 의미를 도출 할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맥락 정보들은 합성어는 상황 개념(ad hoc concept)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결과적으로 합성어의 구성 성분 간의 관련성에 따라 각각의 구성 성분이 갖는 상황 개념이 다르게 구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성어가 사용된 맥락 따라 합성어의 원형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가 상황 의미를 통해 추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석중환. 2011. 영어합성어의 분류. 『현대영어문학』 29, 105-126.
- 양정연. 2020. 관련성 이론에 의한 영어 광고 분석.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 Bagasheva, A. 2011. Compound Verbs in English Revisited. *Buchares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 125-151.
- Barsalou, L. 1987. The Instability of Graded Structure in Concepts. In Neisser, U. (ed.), *Concepts and Conceptual Development: Encological and Intellectual Factors in Categor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1-140.
- Bauer, L. 2001. Compounding. In Haspelmath, M. et al. (ed.)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New York: Walter de Gruyter, 695-707.
- Benczes, R. 2006. *Creative Compounding in English: The Semantics of Metaphorical and Metonymical Noun-Noun Combina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 Bloomfield, L. 1993.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ston, R. 2002. Metaphor, Ad hoc Concepts and Word Meaning – More Questions than Answers. *UC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4, 83-105.

- Carston, R. 2010. Lexical Pragmatics, Ad hoc Concepts and Metaphor: A Relevance Theory Perspective. *Italian Journal of Linguistics* 22, 157-180.
- Carston, R. 2019. *Ad hoc Concepts, Polysemy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y, I. 2009. Newspaper Headlines and Relevance: Ad hoc Concepts in Ad hoc Contexts. *Journal of Pragmatics* 41, 699-720.
- Glucksberg, S., Manfredi, D., and McGlone, M. S. 1997. Metaphor Comprehension: How metaphors create new categories. *Creative Thought: An investigation of conceptual structures and process*. 327-350.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 Libben, G., Gibson M., and Sandra D. 2003. Compound fracture: The role of semantic transparency and morphological headness. *Brain and Language* 84, 26-43.
- Lieber, R. 2005. English Word-formation Processes. In Stekauer, P. and Lieber, R.(eds.), *Handbook of Word-Formation*. Netherlands: Springer. 353-373.
- Mioduszewska, E. 2017. Relevance, Ad hoc Concepts and Analogy. *Linguistics Beyond and Within* 3, 155-168.
- Recanati, F. 2004. What is Said and the Semantics/Pragmatics Distinction. In C. Bianchi (ed.), *The Semantics/Pragmatics Distin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Stanford University, 45-64.
- Scalise, S. and A. Bisetto. 2011. The classification of compounds. In R. Lieber and P. Stekauer(ed.), *Oxford Handbook of Compound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4-53.
- Sperber, D. and D. Wilson. 1986. *Relevance. Language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Sperber, D. and Wilson, D. 2004. *Experimental Pragmatic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Williams, E. 1981. On the “Notions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2, 245-274.
- Wilson D. and R. Carston. 2007. A Unitary Approach to Lexical Pragmatics: Relevance, Inference and Ad Hoc Concepts. In: N. Burton-Roberts(ed.), *Pragmatic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30-259.
- Wilson, D. and D. Sperber. 2004. Relevance theory. In Horn, L. and Ward, G. (ed.),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607-632.

양정연(제1저자), 강사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E-mail: danayang13@gmail.com

이상철(교신저자),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영어영문과
E-mail: sclee@cnu.ac.kr